

임원 후보 출마의 변(辯)

□ 출사표(출마의 변)

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의원 및 회원 여러분!

어느덧 4년의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. 돌이켜보면 많은 성과도 있었고 과오도 있었지만 협회가 크게 발전하였고,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.

그간 주요 정책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.

그러나, 아직도 크고 작게 해결해야 할 일 들이 산적해 있고 글로벌 멤버원 투어로의 도약, 회원을 위한 협회 등 가야할 길이 멍니다. 저는 협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수석부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합니다.

현재 협회의 위상은 대·내외적으로 최고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습니다.

2016년도는 정규투어 33개, 상금 약 210억이 넘는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.

물론, 정규투어만이 모든 것을 대변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탄탄한 정규투어를 바탕으로 다른 부문에서 충분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.

정규투어를 통한 확고한 기반다지기로 대·내외적인 위상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. 이러한 역할이 바로 저의 역할이고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

국내외 주요 대기업회장, CEO, 임원 등 정·재계 주요 인사들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있으며,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저의 가장 큰 장점이자 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. 이러한 저의 장점을 바탕으로 안정성에 기반을 두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.

또한, 드림, 점프, 시니어투어에 대한 정책 및 비전을 새로이 할 것입니다.

특히, 드림투어는 협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투어로서 선수들이 좀 더 편안하게 투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충 및 지원에 대하여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. 그리고 시즌 중간에 드림투어 선수들이 정규투어에 출전할 수 있도록 승강제 시스템을 드림투어에 접목할 것입니다. 상위 성적 선수들이 빈번하게 정규투어에 출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드림투어 순위에 관심이 생길 것이고, 골프장 스폰서뿐만 아니라 기업스폰서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. 이를 통해 드림투어는 한 단계 도약할 것임을 확신합니다.

시니어투어는 시니어선수들의 경기력을 끌어 올릴 수 있으며, 지속적으로 투어를 뒀으로써 레슨 및 기타 대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협회 회원들 모두가 나이를 불문하고 투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제가 시니어투어 5개를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. 제가 당선된다면 저의 첫 목표가 될 것이며, 확실히 시니어투어 5개를 추가 개최하는 것에 대해 대의원 및 회원 여러분께 약속하겠습니다.

협회의 또 다른 이슈는 2,000명이 넘는 회원입니다. 협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회원의 권익보호에 있습니다. 앞으로 4년 동안 임기가 주어진다면 회원의 권익보호,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저의 장점을 발휘해 보겠습니다. 많은 스폰서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회원의 취업 및 진로개발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.

진로상담, 진로개발 교육, 취업센터 개설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

회원 여러분!

저는 협회 회원번호 1번으로서 협회의 역사와 함께해 왔습니다. 그 누구보다도 협회를 잘 알고, 협회 발전을 위해 제 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, 협회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.

여러분! 협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.

이제는 한 단계 높은 사업방향과 정책을 수립하며 도약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.

이제 저는 저의 후임자를 제대로 키우겠습니다. 앞으로 저와 함께 같이 일하는 집행부 및 임원들에게 저의 장점, 스폰서 유대관계 형성 등 많은 저의 노하우를 전수할 것이며, 무엇보다도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협회를 반석위에 올려 놓겠습니다.

저는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.

여러분! 제가 협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.

믿어주십시오, 정말 잘 하겠습니다. 충실히 하겠습니다.

마지막으로,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강춘자 올림

2016년 03월 11일

작 성 자 : 강 춘 자

(인)